

## ■ 2026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 회의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1: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훈, 김요셉, 김장언, 신성아, 심진경, 최지연, 허연, 호경윤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사업은 한국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예술 교류 기반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1건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이 중 행정 결격 8건을 제외한 123건을 대상으로 서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레지던시 운영 기관에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는 9개 기관에 대해서는 후보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진행하는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최종 선정자를 선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안서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공고문에 안내된 심의기준(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여)에 더해, 심의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통해 다음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명확한 예술적 비전과 사업 목표 설정 여부, ② 상대 기관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구조 ③ 레지던시 이후의 확장·환류 계획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신청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의 결과, 선정된 사업들은 해외 레지던시 참여가 작가 개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귀국 후 창작 결과 공유, 공동제작, 후속 연계 및 네트워크 허브로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제안서는 ‘국제 레지던시 체류’ 자체를 목표로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주거나 해외 기관 및 현지 예술계·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방식,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구체성, 위험관리 및 예산 구조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파트너 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혹은 단기 연수 성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청자는 ① 레지던시 선택의 전략적 근거와 예술적 필요성, ② 한국 현장과의 환류 계획(공유 프로그램, 공동창작, 장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사업은 국제교류 사업 간 연속성과 예술가 지원 정책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통해 실험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겸비한 예술가 및 단체를 다수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정 사업들 역시 향후 중장기 국제교류 생태계 구성에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위원 일동